

'공동세일' 나들가게 10일간 350만원 더 벌었다

9월 12~21일 광주·전남 슈퍼 35곳 100개 품목 할인

하루 매출 30만원·고객 50명 증가...매출 전주보다 14%↑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세일 상품을 값싼 가격에 공동구매해 판매할 수 있었고 구매영수증 인증샷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공유 이벤트도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실시한 나들가게 공동세일에 참여한 광주·전남 지역 점포가 참여하지 않은 곳에 비해 행사기간동안 평균 350여만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우리동네 슈퍼! 나

들가게 공동세일'에 참여한 점포는 미참여점포보다 일평균 30만원 많은 115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행사 10일 동안 참여점포들이 미참여점포보다 1150만원 이상을 더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일평균 고객 수도 참여점포가 미참여점포보다 50명 더 많은 15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율로 보면, 행사기간 내에 참여점포가 미참여점포 보다 전주 대비 13.7%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8.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행사 이후에도 공동세일전 효과가 이어지면서 참여점포가 미참여점포보다 일평균 40만원 정도 많은 14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석명절 특수를 감안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한 수치로, 공동세일이 장기적으로 참여점포의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세일에 참여한 광주시 북구의 나들가게 업주는 “전단지 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았다”며 “골목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고 말했다.

또 “세일상품을 혼자 구매하기는 부담스러운데, 다같이 힘을 합치니 값싼 가격에 편하게 상품을 구매해 쓴 가격에 팔 수 있어 호응이 좋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

다.

이와 관련 김일호 중기청 소상공인정책 국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으로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을 골목상권의 자생적 성장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공동세일전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은 지난달 12일부터 10일간 개최됐으며 광주 12곳, 전남 23개를 비롯해 전국 408개 나들가게와 동네슈퍼가 참여했다. 전국의 나들가게 상품공급사를 통해 라면, 식용유, 고추장 등 80여개 공산품과 20여개 정육·청과·채소 등 100여개 품목이 공급됐으며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8.25 (+8.57)	▼ 금리 (국고채 3년) 1.58% (-0.01)
▲ 코스닥 691.19 (+4.77)	▼ 환율 (USD) 1172.40원 (-8.30)

한국인 소비만족도 63.8점

1년간 11%P 하락...소비양극화 지수 169 역대 최대

한국인들의 최근 1년간 소비생활 만족도가 10.9% 정도 하락하고 소비양극화는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전국의 20세 이상 소비자 2575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의 만족도와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5일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최근 1년간 경험한 소비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63.8점으로 응답해 직전 조사인

2013년 만족도 71.6점보다 10.9% 낮았다. 그중에서도 경조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59.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미용·헬스, 금융·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60.6점, 61.2점으로 나타나 하위권을 형성했다.

소비자 59.6%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비자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유형은 품질대비 비싼 가격이 25.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정보 부족 12.6%, 품질불량 11.9%, 부당 표시·광고 10.6%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세계 광산업 기술 광주에 모인다

222개 업체 369개 부스...7일부터 DJ센터 광산업 전시회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5국제광산업전시회'와 '2015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OCTC2015)'가 7일부터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UN이 정한 '세계 빛의 해(Light Of Year)' 지정행사로 222개의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부스 규모만 해도 369개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의 규모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건축박람회와 광주유외광고대상전을 동시에 개최하는 융복합 행사로 광산업이 신시장을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 동부라이텍, LG이노텍, SKT, 한국전력 등 대기업이 대거 참가하며 독일, 덴마크,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22개사가 국가관을 꾸민다. 해외 27개국 195명의 실질 구매력이 있는 해외바이어를 유치해 글로벌 전시회로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실질적인 바이어 유치와 거래 확대를 위해 1년전부터 과거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면담일정을 확정하는 등 매칭기업 발굴과 수출상담회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전시회를 기해 국내·외 최신 광산업 제품과 신기술도 소개된다. 초경량 슬림형 LED제품과 광케이블 등 광통신 관련 제품, 무선광통신 수신기, 비광각방식 단파장 스캔 카메라 등이 출품된다.

세계 빛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에는 기초강연과 컨퍼런스가 준비됐다. 최근 광융합기술로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중의 하나인 차세대 3차원 디스플레이에 대해 다카기 일본 동경대 교수가 기초강연을 하며 세계적인 바이오포토닉스분야 전문 연구소인 미국 UC버번대학 베크만연구소의 브루스 소장이 의료광학기술에 대해 연설한다.

또 레이저, 광통신, OLED·LED, 바이오포토닉스 등 분야별 국내외 최고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이틀간 열리게 된다.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국립전파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등 18개 광산업클러스터 입주 연구지원 기관과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연계해 광산업육성지원기관 홍보관과 차세대 미래기술(OLED, 레이저, 무대조명 등) 체험관을 마련했으며 향후 광산업 분야 유망기술과 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세미나와 포럼도 열린다.

이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참가객과 시민들을 위해 전시장 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일본 OLED테마관, LED경관조명 체험관, 호남권 대학 산학·Link사업단·광산업 공동브랜드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드론 비행전국대회와 클래식·재즈 문화 공연, 참가객 대상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삼성 스마트 워치 판매 돌입

KT가 2일부터 전국 KT 공식 판매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기어 S2'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KT 모델들이 공식 판매 매장에서 기어S2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치킨집 3만6천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보다 많아

한국 자영업의 상징인 치킨집이 해마다 늘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16개 업종)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치킨전문점 수는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039개) 다음으로 많았다.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주판매 품목이 치킨이면서 호프집 등 타업종을 병행하는 곳까지 합치면 치킨집은 3만개를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000개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당시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상대로 치킨전문점 현황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본적인 토대로 닭강정, 불닭 등 치킨을 주판매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를 더했고 닭갈비, 찜닭, 삼계탕, 닭 꼬치 등을 파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 치킨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으로 치킨전문점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킨집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열린다. 실제로 전체 자영업자 수는 하락 추세지만 치킨전문점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

오비맥주, 세계 현장 누빌 인재 채용

19일까지 온라인 지원 접수

오비맥주가 10개월간 세계 곳곳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글로벌 경영연수(GMT·Global Management Trainee)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10여명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오는 2016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경력 2년 미만의 졸업자로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과 해외 근무가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 인베브 글로벌 채용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AB 인베브의 글로벌 CEO와 임원진을 만나 세계경영의 현장 경험을 청취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오비맥주는 10개월의 프로그램을 마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업무 배치를 하고 외국 근무 기회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810동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펌프장, 배수장, 양민장, 배수갑문, 양수장, 저수지, 골프장, 상하수도

특장점: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J.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